

## 한-러, 동방경제포럼서 극동 경제협력 본격추진

-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출범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북방경제협력의 현실화로 자원 에너지 인프라, 교통물류 ICT, 조선업 수산 등 한-러 경제협력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

-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국내 기업인 및 전문인 등 300여명 규모의 대표단과 함께 방문해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푸틴 대통령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지며 정상 간 유대신뢰 강화
- 문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극동개발과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신북방정책을 제시했으며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다리'(9-Bridges) 협력분야 강조
-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러시아 극동개발부 간 협력 강화 ▲2018년 중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양국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대비 ▲한-유라시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작업반 협의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함
- 또한, 한-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와 한국 양국이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한국 공급을 현재 연 20억m<sup>3</sup>에서 연 120억m<sup>3</sup>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 협의 중이라고 밝힘

자료 1: 한국일보 (17.09.08.)

## 한-러, 북극항로 개척 등 양국 간 협력 본격추진

- 이번 제3회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그간 어업에 국한되었던 러시아 진출 분야가 항만 해운 수산물 가공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7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맞춰 우리나라 대표단과 함께 방문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수산청(청장 일리야 슈스타코프)과의 회담을 통해 북극해 항로 운항 등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해양 수산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양측은 조업부터 확대,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조성 및 항만개발 투자, 북극항로 개척 등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수산-항만-해운물류 및 극지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
- 북극항로가 개발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 전략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진출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러시아 극동개발부 간 회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및 주요 거점항만 개발사업투자에 대한 양국의 지원방안, 북극항로 개발 등 북극 협력방안을 논의함

자료 2: 뉴스핌 (17.09.08.)

## 중국 쇄빙선 설롱호, 캐나다 북서항로 항행

- 중국이 극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북극 항로 개척 및 극지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국과 함께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향후 조처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됨

- '17년 8월 31일 아시아타임즈는 '17년 7월 20일 중국 상하이로 출발한 중국 쇄빙연구선 설롱호가 캐나다의 북극 지역의 북서항로에 진입했다고 보도
- 설롱호는 북극일주의 마지막 단계의 항행 중에 있으며,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의 북빙항로를 지나 스칸디나비아 해역을 거쳐 캐나다로 진입
- 캐나다 북극 전문가인 로버트 휴버트(Rob Huebert)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설롱호의 항행을 두고서 중국이 북극해를 가로질러 북미 및 유럽으로 통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반 티당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휴버트 교수는 현재 설롱호가 데이비스 해협을 지나고 있으며, 위성사진을 통해 진행방향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
- 중국 선박이 북극을 일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설롱호에는 북극 및 해양학 전문가를 포함해 96명의 승무원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알려있으며, 총 83일 동안 항행 예정
- 중국 설롱호는 1993년 건조되어 주로 중국 연구기지에 물자를 운송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제2의 쇄빙선 건조를 공식 착수해 자체기술로 건조 중이며 2019년에 완료될 예정. 건조 중인 제2의 쇄빙선 외에도 중국은 원자력 쇄빙선을 건조할 계획임을 밝힘

자료 3: Asia Times (17.08.31.)